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젠더 평등을 위한 정책조합? 고소득 국가의 교훈_ILO Report

2013.04.04 | 김수현 | sida7@saesayon.org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새사연 추천보고서는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Megan Gereche (2013) A Policy mix for gender equality? Lessons from high-income countries, ILO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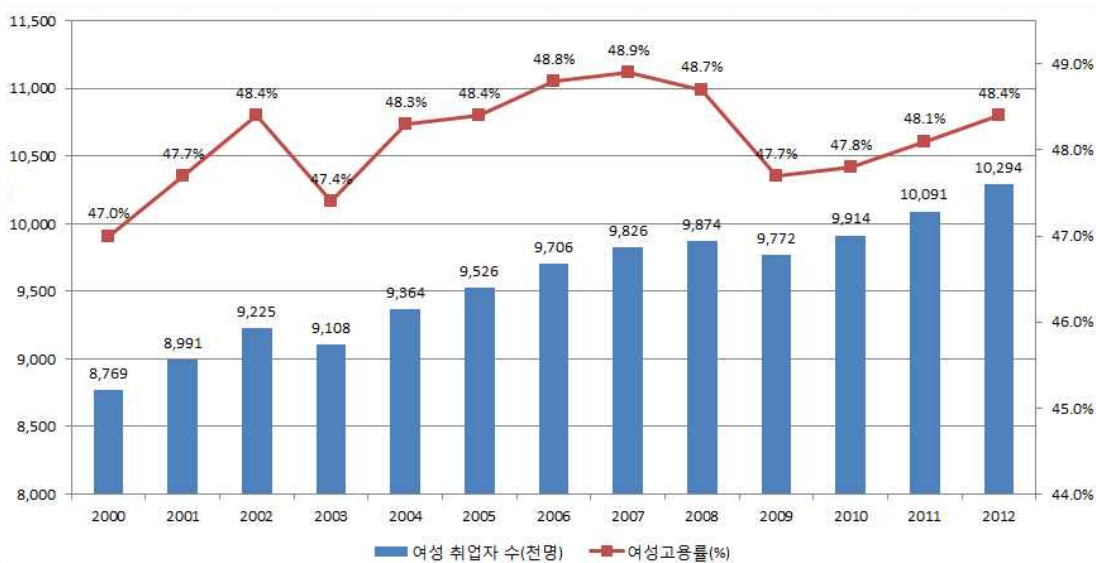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림 1] 여성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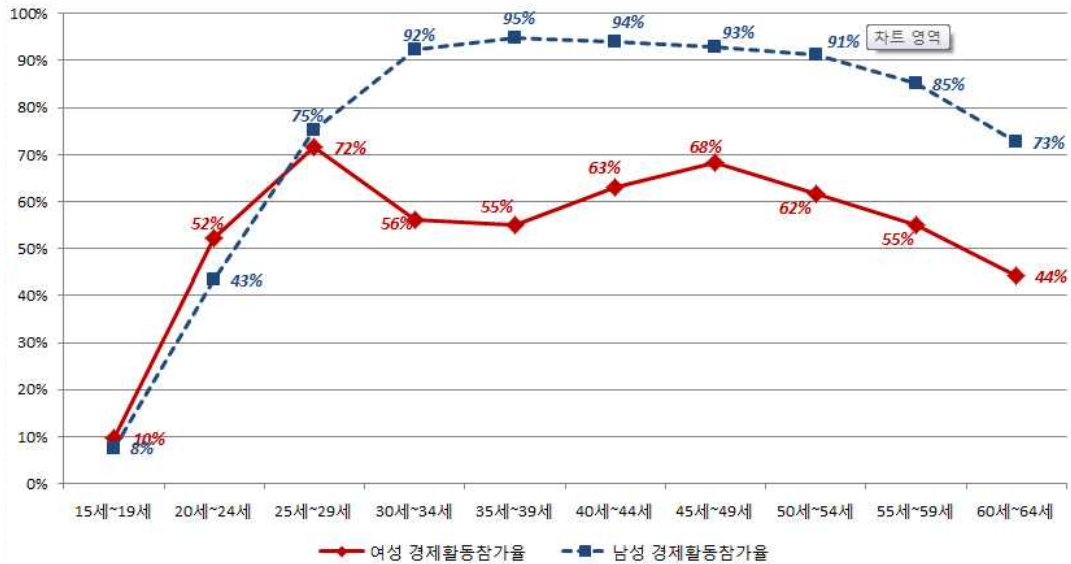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림 2]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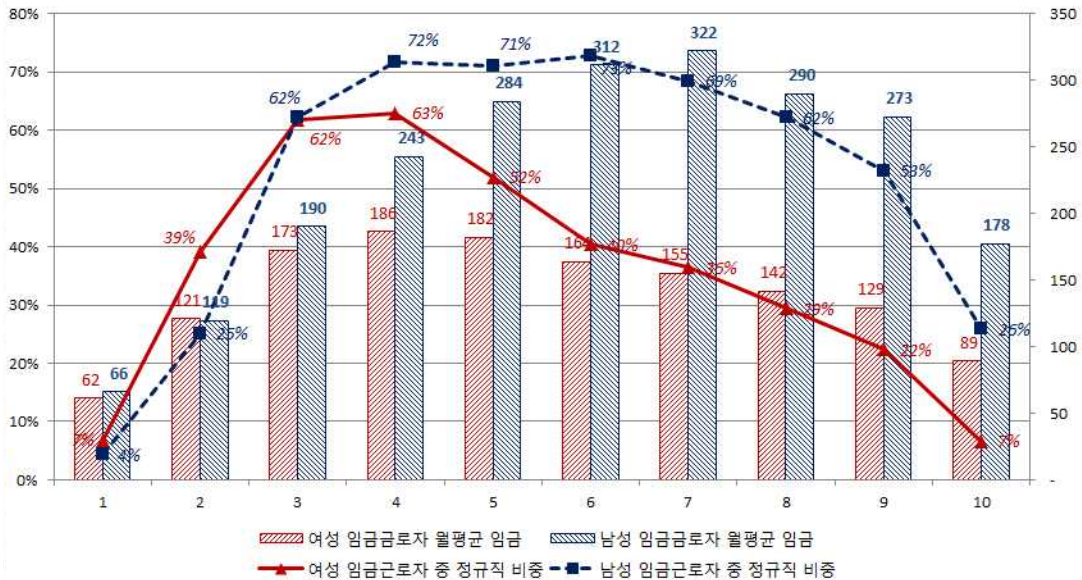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이용 추계

한편,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퇴사종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총선 전부터 여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한 듯 주장하던 새누리당 역시 작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무처 여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¹⁾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그림 3] 연령대별 성별 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 (단위 : %, 만원)



※ 출처 : 통계청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이용 추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차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성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빈곤인구의 규모를 구해보면 전체 인구 중 14.3%가 빈곤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³⁾, 이 중 남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에 속한 인구의 빈곤율은 10.1% 밖에 되지 않지만,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에 속한 이들의 경우 31.9%가 빈곤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이 중요한 영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구주가 가구의 주소득원인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 가구주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증대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연

- 1) 여기서는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하는 “김유선 (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음
- 2)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김수현 (2013) 여성의 노동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을 참조
- 3) 여기서는 2011년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만을 가지고 1인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지표를 구하고 있음. “김수현 (2013) 여성의 노동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조

구자들은 국가별 비교자료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노동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증가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 ILO는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인 Megan Gerecke(2013)는 "젠더 평등을 위한 정책조합? 고소득 국가의 교훈(A policy mix for gender equality? Lessons from high-income countries)"에서 19개의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Megan Gerecke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 형태, 지위, 임금 수준 등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원인에 대해 노동공급 측면, 노동수요 측면, 문화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직면해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우선적인 해결이 필요한 몇 가지 여성 차별 문제를 강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녀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가진 여성의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저자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사이의 고용률 격차가 오히려 자녀가 있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보다 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자녀 유무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자녀를 가진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 할 경우, 단기적인 불평등은 여성의 생애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저자는 추가적인 여성 노동에 대한 세금과 사회적 급여 혜택 개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한 보수는 지급하되 기간은 짧게 하는 육아휴직 보장,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하는 고임금 시간제 일자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저숙련 노동자를 요구하고 있고, 저임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 제한, 사회적 급여와 승진 기회의 상실로 이어져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줄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저자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여성 빈곤 문제와 노동시장 내 여성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직면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우며, 저임금 일자리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육성 및 보호, 노조와 단체협약 적용률 상승, 최저임금법 제정, 세제 개편, 실업보험 강화, 해고로부터의 보호 강화 등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을 통해 저임금 여성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 여성의 소득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직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자는 여성의 낮은 지위와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전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 사이 일자리나 지위 상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한다. 저자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직종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일할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 정형화되고 성별화된 선호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의 결정과정에서의 성별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은 경영진의 일정 비중을 여성으로 하는 실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시사점 :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이상에서 살펴본 Megan Gereche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 내 여성들이 직면한 차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시간제 노

동을 더 포괄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면, 앞서 살펴본 4가지 중요한 문제는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받는 차별의 정도가 선진국보다 심각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정책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받는 차별 해소에 있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입과 함께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정책을 따르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의 남녀차별 금지법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나아가 우리 현실에 맞도록 이 정책들을 수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Megan Gereche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곧바로 수행하기는 힘든 정책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70%대로 상승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를 통한 여성고용률 진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아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여성 차별 해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2013년 새사연의 ‘추천 보고서’ 목록

2013년 4월 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추천 보고서	2/18	헬리콥터 머니: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2/21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김병권
추천 보고서	2/27	국제 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이은경
추천 보고서	3/4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여경훈
추천 보고서	3/5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최정은
추천 보고서	3/6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김수현
추천 보고서	3/14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김병권
추천 보고서	3/20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이은경
추천 보고서	4/4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김수현